



지난 6일 막을 내린 제68회 3.1절기념 강진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 마지막 날 크리테리움경기 참가선수들이 강진종합운동장 외곽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제68회 3.1절 기념 강진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 '성료'

대한자전거연맹 주관 전남도·강진군 후원...선수·임원 300여명 참가

남녀 41개 팀 250명 선수 치열한 경쟁...코로나19로 '안전' 목표 최선

지난 3일 개막한 제 68회 3.1절기념 강진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가 크리테리움 경기를 끝으로 4일간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대한자전거연맹이 주관하고 전남도와 강진군이 후원한 이번 대회에는

선수들과 임원 300여 명이 참가해 도로 자전거의 최적지 강진군을 달렸다. 남녀 41개 팀 250명의 선수가 치열한 경쟁을 펼친 이번 대회에서 단체종합 남자일반부에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여자일반부는 삼양사, 남자와

등부는 강원 양양고, 여자고등부에서는 제주 영주고가 우승을 거머쥐었다. 개인종합부문에서 남자일반부는 월등한 기량을 발휘해 장거리와 단거리 2관왕을 거머쥔 차음성균정 장경구 선수가 차지했다. 여자일반부 역시 장거

리와 단거리 2관왕의 삼양사 소속 차음성균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개인종합 남자고등부에서는 서울체고 정승화 선수가, 여자고등부에서는 경북체고 이주은 선수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강진군은 지난 2020년 제67회 대회가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으로 취소된 바 있는 경험과 17년을 다져온 대회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를 감염병 예방 등 '안전'에 목표를 설정하고 대회 추진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였다. 강진 도착 시 음성판정 결과지를 제출받아 대회 참가 자격을 주었고 대회장 입구에서 모든 출입자의 QR코드 등록과 발열검사를 매일 실시하여 확산 방지 활동을 꾸준히 가졌다. 특히 무증상감염을 막기 위해 대회 관계자와 경기장 출입을 막는 무관중 경기, 학부모의 강진방문 금지와 선수단 전원 강진숙박으로 방역대비를 철저히 했다. 또한 대회 개최와 병행 해 왔던 500

명 이상이 참가하는 동호인들의 마스터즈 경기는 취소를 해 타 지역 사람들의 강진방문을 차단했다. 대한사이클연맹 김기운 전무이사는 "동계전지훈련부터 대회까지 선수들의 안전과 사고예방에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협조로 무사히 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며 최최의 경기환경을 갖춘 강진군과 강진군민들의 노력에 거듭 거듭 감사의 뜻을 밝혔다. 강진=김영일 기자

"한복판 던진다고 흠뻑 맞나요?" 시속 152km 던지는 루키 이승재



"한복판 던진다고 흠뻑 맞나요?". KIA 타이거즈 대졸 루키 이승재(21)가 1군 필승맨을 향해 힘차게 볼을 던지고 있다. 1군 캠프에 입성해 불펜에서 150km짜리 볼을 뿌렸다. KIA 투수 가운데 가장 볼의 힘이 좋다는 평가를 받았고 1군 필승맨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3일 합평에서 라이브 투구를 하며 본격적인 실전모드에 들어갔다. 이승재의 무기는 대학시절 152km 기록한 빠른 볼이다. KIA는 스피드를 보고 불펜 즉시 전력감으로 생각하고 지명했다. 합평 훈련장에서 만난 이승재는 "내 장점은 야구에서는 주자가 있을 때 올라와도 자신있게 내 공 던진다는 것이다. 빠른 직구가 자신 있

다. 캠프 불펜피칭에서는 150km까지 나왔다. 연습경기에 들어가면 스피드가 더 나올 것이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관건은 슬라이더이다. 새로운 그림의 슬라이더를 배웠다. 은퇴한 윤석민 선배의 슬라이더이다. 윤석민은 고속 슬라이더를 던졌다. 각도 크고 예리하다. 절친했던 광정철 불펜 코치가 중간에 다리를 놓아 슬라이더를 전수받도록 했다. 아직은 100%가 아닌 미완성 구종이다. 이승재는 "직구와 투심 이외에 슬라이더를 새로 배웠다. 아직 슬라이더가 어렵다. 배우고 연습하고 있다. 루지력 선배도 투심과 직구는 좋는데 슬라이더를 지적 하셨다. 원래 던졌는데 프

로에서 안통할 것 같아 새로 배웠다. 광정철 코치께서 윤석민 선배에게 배워서 알려주셨다"고 말했다. 이승재는 캠프에서 많은 공을 던지지 않고 있다. 그는 "투구수가 적지만 집중해서 던지고 있다. 학생 때는 무조건 많이 던졌다. 도움이 될 것 같고 믿는다. 선배들도 '1년 동안 하려면 무리하면 말고 벌써부터 페이스 조절을 하라'고 조언해주었다. 몸 관리 하는 방법의 하나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윌리엄스 감독과 정명원 투수코치의 주문도 있었다. 그만큼 기대감이 높다. "코치님은 내 볼이 빠르고 구위가 좋으니 자신있게 가운데 보고 던지라고 하셨다. 감독님은 스트라이크를 던질 줄 알아야지 떨어뜨릴 때 타자들이 속는다. 계속 떨어지는 볼만 던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신인으로 1군 캠프에서 기회를 잡았다. 프로 첫 캠프 생활에 대해서는 "형들이 편안하게 잘 해주셔서 재미있다. 3년차 투수 김현수와 동기이다. 김현수에게도 많이 배우고 있고, 도움이 될 것 같다. 차분한 성격이다. 어울리는 것도 좋아하고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하는"다며 웃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이 마무리 캠프 때 잘 보신 것 같다. 불펜에서 강한 볼을 이용해 타자들을 잡아주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1군을 향해 열심히 해보겠다. 빠른 볼을 앞세우고 슬라이더 제구되면 자신있다. 추신수 선배 등 최고 타자들과 승부는 재미있을 것 같다. 한 가운데 보고 던지겠다. 그렇다고 흠뻑맞는 것 아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민정 기자

英매체 "손흥민, 이번 달 한일전 성사돼도 못 땀" 축구협회, A매치 기간 한일전 추진...변수는 자가격리

축구협회, A매치 기간 한일전 추진...변수는 자가격리



한국 축구대표팀 '캡틴' 손흥민(29·토트넘)이 3월 한일전이 성사돼도 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는 6일(한국 시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구단들에 3월 A매치 차출은 큰 이슈"라면서 "웨일스와 리버풀, 토트넘 등은 자가격리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수 차출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라고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대표팀에 다녀온 뒤 격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소속 구단이 차출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주장인 손흥민도 3월 A매치에 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 매체는 "토트넘이 남미 출신 선수인 다빈손 산체스(폴로비야), 지오바니 로셀소(아르헨티나)와 아프리카 출신 세르지 오리에(코트디부아

르)의 차출 거부를 고민 중"이라며 "손흥민도 한국과 일본의 친선 경기에 나서지 못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A매치 기간 대표팀 차출은 의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축구연맹(FIFA)이 대표팀에서 복귀한 뒤 5일 이상 자가격리를 해야 할 경우 차출을 거부할 수 있는 임시 규정을 만들었다. 이는 4월 말까지 적용된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문제로 영국은 해외 입국 후 10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시즌 막판 치열한 순위 경쟁 중인 EPL 구단들이 주요 선수들의 차출을 반대하는 이유다. 맨체스터 시티의 펠과르디올라 감독은 "대표팀 차출을 막을 수 없지만, 이번에는 예외다. 귀국 후 10일의 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차출에 응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일본축구협회의 제안을 받고 3월 말 A매치 기간에 일본에서 한일전을 치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한국도 해외를 다녀오면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협회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방역 당국과 자가격리 면제를 논의하고 있다.

"우승 다툼 안 끝났다" 흥국생명, 연패 끊고 1위 복귀

'쌍둥이 학폭' 논란에 팀 흔들 김세영 손가락 부상 시즌아웃 김연경·브루나 활약 선두 탈환

흥국생명이 선두를 탈환했다. 흥국생명은 6일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열린 도드람 2020-2021 V-리그 여자부 한국도로공사와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1(22-25 25-23 25-23 25-15)로 이겼다. 2연패를 벗어난 흥국생명은 승점 56(19승9패)으로 GS칼텍스(19승9패 승점 55)를 끌어 내리고 선두로 올라섰다. 흥국생명은 개막 10연승을 달리며

단독 선두로 앞서갔지만, 지난 달 이재영-이다영의 학교 폭력 논란이 터지며 팀 전체가 흔들렸다. 1위 자리까지 빼앗긴 흥국생명은 이날 김세영이 손가락 부상으로 시즌 아웃돼 또 한번의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김연경(26점)과 브루나(23점)의 활약을 앞세워 연패에서 탈출하며 선두 복귀까지 달성했다. 김미연도 13점을 올렸고, 김채연은 블로킹 5개, 서브 3개로 8점을 따내며 힘을 보탤었다. 흥국생명이 다시 1위로 올라서면서 남은 시즌 동안 '우승 다툼'도 더 치열해졌다. 흥국생명과 GS칼텍스는 나란



히 정규시즌 2경기 씩을 남겨냈다. 3위까지 주어지는 포스트시즌 티켓을 노리는 한국도로공사는 2연패에 빠지며 4위(12승17패 승점 39)에 머물렀다. 롯데가 희망도 더 희미해졌다. 한국도로공사 켈시는 23점, 박정아가 17점을 수확했다.

이상호, 스노보드 월드컵 평행대회전 12위

이상호(26·하이원리조트)가 국제 스키연맹(FIS) 알파인 스노보드 월드컵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12위에 올랐다. 이상호는 7일(한국시간) 슬로베니아 로글라에서 열린 2020-2021 FIS 알파인 스노보드 월드컵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출전 선수 61명 가운데 최종 12위를 차지했다.

그는 예선에서 1·2차 시기 합계 1분00초36을 기록해 전체 6위로 예선 상위 16명이 진출하는 본선에 나섰다. 본선 16강에서 예선 11위 잔코시르(슬로베니아)와 대결한 이상호는 0.50초 차로 뒤져 8강 진출에 실패했다. 12위는 올 시즌 월드컵에서 이상호가 낸 최고 성적이다.

이번 시즌 종전 최고 성적은 1월 스위스 스쿠올과 러시아 모스크바 월드컵 대회에서 기록한 13위다. 이상호는 이달 초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평행회전 5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함께 출전한 김상겸(32·하이원리조트)은 최종 14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예선에서 1·2차 시기 합계 1분00초43을 기록해 9위에 오른 김상겸은 본선 16강에서 네빈 갈마리니(스위스)에 0.65초 차로 패배했다.